

내용 요약

이 책은 중앙아시아의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선교역사를 연구한 책이다. 네스토리안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에서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발전했지만, 서구 중심적인 편견과 역사 서술에 의해 무시되고 왜곡되어 왔다. 네스토리안 교회에 대한 최근 세계 학계는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흐름은 네스토리안 교회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하려는 연구경향이다. 두번째 흐름은 네스토리안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를 근거로하여 네스토리안 교회를 재평가하려는 연구 경향이다. 저자는 두 번째 연구 흐름의 맥락에서 네스토리안 교회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네스토리우스의 교리적 논쟁보다는 역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5세기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추적하여 유추하고, 5세기 이후부터 15세기까지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다. 본 내용의 시작에 해당하는 2장에서 저자는 네스토리안파의 태동과 초기 중앙아시아 기독교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네스토리우스가 431년 공의회에서 정죄된 것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장은 투르키스탄제국시대에 네스토리안파의 전파 과정을 다루고 있다. 당시 투르키스탄제국은 유목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국제적 상인인 소그드인들의 역할에 힘입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당나라, 동인도까지 전파되었다. 4장은 위구르제국에서의 네스토리안의 활동과 역량에 대해, 5장은 몽골제국에서의 네스토리안 파의 부흥에 대해 다루고 있다.